

# 실내건축에 있어서 사상체질에 따른 한국인의 색채선호에 관한 연구

한 기 증\* · 이 특 구\*\*

## A Study on the Color Preference of Koreans by the Sasang Physical Constitution in Interior Architecture

*Han Gi-jeung · Lee Teuk-koo*

This thesis on the basis of the "Sasang"(the four classification by the physical constitution) that becomes the focus of the public interest in Korea intends to grasp a color image and serve basic materials for the color usage in the interior design planning.

It trie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onstitution and color. The color planning for experiment plans to be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lor.

Analysis result on color and color image to patterns of interior color shows that the physical constitution in measure difference is bigger than sex among the many image evaluation items.

Therefore, the interior color preference of Korean is bright hue and tint such as warm and cool color.

키워드 : 사상체질, 실내색채

---

\* 한양여자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I. 서론

### 1. 연구 목적

색채는 인간의 의식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다양한 심리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원으로 인간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생활공간에 색채사용의 영역 또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거주자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물내부 색채계획을 위해서는 색채사용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색채에 대한 반응은 개별적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적, 지역적 조건에 따라 또는 민족적 집단 의식에 따라 공통의 경향을 엿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역적 특성과 현대라는 시간적 조건에 따라서 거주자들이 실내색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 색채에 대한 이해와 전통적 사상에 근거해 연구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요즈음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동양철학에서 출발한 사상체질론에 착안해서 실내색채에 대한 심리적 반응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기능적, 정서적 만족을 주고 시각적인 스트레스를 적게하며 실내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건물내부 색채계획을 위한 자료를 제시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한국인을 대상으

로 하였다. 또 시간적으로는 현대에 사는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다. 연구의 내용은 건물 내부의 색채에 대해 각기 다른 유형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 반응과 선호도를 조사하고 앞으로의 실내 색채계획에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 1) 연구주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동양철학에서 비롯된 사상체질과 색채심리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 2) 한국의 전통색을 추출하여 실험용 배색표 및 실내투시도 모델을 제작했다.
- 3) 실내색채 이미지 평가도구를 작성했다.
- 4) 조사대상자를 선정해 설문형식으로 조사실험을 했다.
- 5) 통계해석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했다.
- 6) 결론을 도출했다.

## II. 체질과 색채심리

### 1. 체질과 사상의학

#### 1) 체질론

체질은 개체의 형태적, 기능적 특성으로서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및 양생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체질구별에 있어서 어떠한 객관성을 찾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왔다.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BC. 460-337)가 혈액, 점액, 담즙, 극담즙 4액체 병리설을 주장한 이후 갈레누스(BC. 199-129)가 이를 바탕으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의 4기질로의 분류로 발

전시했으며 이것을 독일 철학자 칸트가 감상적 기질과 활성적 기질로 정리하였다.

동양에서는 인체를 정신과 육체로 분리시키지 않았다. 동양에서의 중요한 유형체질론은 양인과 음인이다. 그러나 동무(東武) 이제마(1837~1900)는 그의 저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서 인간의 체질적인 유형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사상인론을 제창하였다.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사상체질론은 우리나라 고유의 인간에 대한 체질의학적 접근이다. 이는 한국의 독창적 체질의학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우수성과 학문적,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sup>1)</sup>는 사원구조의 신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다.

## 2) 사상의학(四象醫學)

동무가 59세 되는 1894년 그의 독특한 철학적 바탕위에서 새로운 차원의 의학을 성립시킨 것이다.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원」의 기술에 의해 인간을 사체질로 분류하고 그 생리, 병리를 전개한 체질의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체질의학이라는 국한된 범위, 즉 생리조직학적 기능에 의한 인간의 체질만을 논하려는 의학이 아니라 심성적 정 의 및 정신적 욕구로서의 회노애락을 함께 다루고 더 나아가 인간의 윤리적 생활의 근원으로써 호선 오악과 우주론적 원리로서의 생명을 근간<sup>2)</sup>으로 하는 학문인 것이다.

사상의학에서의 회노애락은 유학적 사고에서 출

발함으로 인하여 인간사회의 관계 즉 인간의 윤리 도덕에 기초한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체질적 정기를 목적으로 하는 유학적 치심치병의학(治心治病醫學)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즉 체질은 타고난 것으로 변할 수 없으니 가변적인 조건을 잘 운영해서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스려 각 사람의 특성에 맞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것이다.

## 3) 체질감별

오늘날 사상의학의 철학적 의의 및 임상적 활용 가치가 날로 고양됨에 따라 한의학계에서는 사상체질의 분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고 있다.

체질감별을 위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첫째, 신체의 특정부위를 측정하는 척도법

둘째, 임상적인 체질감별 연구방법으로 맥진법, 오링테스트등

셋째, 인체내의 물질(호르몬이나 혈액 등)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는 체질감별법

넷째,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감별 연구방법 등이 있다.

1) 이철호, 「체질대로 삼시다」, 서울 : 기린원, 1992.

2) 고병희, "사상체질별 성격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제14권 제2호, 1993, p.65.에서 재인용

3) 김종원, 김중우,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감별과 사상체질별 인격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Vol. 15, No. 1, 1994, p.71.에서 재인용

4) 앞의 글, p.67.

## 2. 체질과 색채심리

서양의 물리학자 펠릭스 도이취(Felix Deutch)는 색채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색채는 단지 느낌과 정서만을 통하여 혈관계에 반사작용을 일으킨다.
- 이 때 일어나는 반응은 개인의 특수한 정신적 기질에 따라 다르다.
- 시각 이외의 색채 감지기관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색채에 접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인체기관에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sup>5)</sup>

즉 인간은 색채에 의해 정신적인 자극을 경험하며, 그 경험은 또 성장에 관계되는 신경계를 통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등 모든 생존기능을 신장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색채의 순수한 시각적, 정신적 느낌이 육체적인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심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 색채와 성격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색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따뜻한 색, 즉 난색에 민감하다. 한편 내향적인 사람은 차가운 색에 민감하다. 또한 기질적인 면에서 볼 때 다혈질인 사람은 노란색, 우수질인 사람은 푸른색, 담즙질인 사람은 빨강색, 점액질인 사람은 초록색을 선호한다고 한다.

사상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각 개인은 체질에 따라 맞는 색이 있다고 한다. 체질이 양인 사람과 음인 사람이 있듯이 색에도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본다. 양극은 난색계의 색이고 음극은 한색계의 색이다.

체질이 양인 사람은 음의 색, 즉 한색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음인 사람은 양의 색 즉 난색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갖고 있는 성질의

균형을 이룬다.<sup>6)</sup>

여기서 앞서 설명하였듯이 사상의학이 치심치병 의학이라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양인 사람의 성격은 외향적 경향이 있다. 여러 색채 심리 연구에 의하면 양인 사람은 따뜻한 색을 선호하나 색을 정서적 처방의 목적 혹은 기능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와 반대인 차가운 색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명복의 「체질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에서는 색과 체질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든 색의 진한색 즉 검정색은 소양인에게만 좋다. 빨강, 노랑, 초록, 청색, 보라색의 원색은 모든 체질에 나쁘다. 특히 인체에 접촉하는 물건이나 옷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모든 체질에는 중간색이 되는 흐린색, 분홍색, 베이지색, 회색이 좋다.

## Ⅲ. 한국전통색을 이용한 색채계획

### 1. 색의 선정

#### 1) 기준색

건축물 내부는 벽과 바닥, 천정 그리고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재질, 색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색채는 다색배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색채를 오정방색, 오간색, 단청색을 포함해 KBS 한국색채연구소에서 발간된 한국의 전통색 중에서 찾았다. 가장 두드러진 사용을 보여주는 적색계열, 청색계열, 황색계열, 무채색 계열의 색중에서 실내색채 설계에 이용하기 쉬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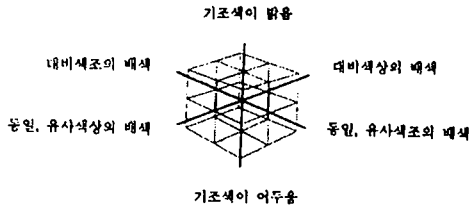
5) Faber Birren, 김화중(역), 「색채심리」, 서울 : 동국출판사, 1993. pp.194-200.

6) 배은우, 「색깔로 나를 바꾼다」, 서울경향신문사, p.50.

으로 판단된 36개의 색을 임의로 선정해서 면설기호를 부여하고 실험용 실내색채로 사용했다.

## 2) 3배색

실내색채 계획 및 실내 색채이미지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 배색표를 3색에 의해 만들었다. 3색은 실내의 벽, 바닥, 가구 혹은 창틀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배색은 한국 전통배색의 특징을 살리고 건축물 내부의 배색의 조건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다. 배색의 영역결정은 인테리어 배색모델 <그림1>을 따랐다.



<그림 1> 인테리어 배색모델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3색 배색상의 색의 3속성에 의한 기호와 배색의 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배색에 사용한 3색상의 기호와 배색영역

기조색	H:색상 T:색조	배색 특징	삼속성에 의한 기호			
밝음 (light)	H	동일, 유사	7.5RP9/1	5B6B/1	2.5PB9/2	
			7.5RP9/2	N9.5	2.5PB6/8	
	T	동일, 유사	7.5RP8/2	5B6/2	2.5PB8/4	
	H	동일, 유사	2.5GP/4	2.5PB8/2	2.5YR8/4	10YR7/4
			2.5G7/4	2.5PB6/8	2.5YR4/6	10YR5/4
T	대 조	2.5GA/4	2.5PB5/10	2.5YR6/2	N6	
H	대 조	5B9/1	7.5PB8/4	7.5RP2/2	2.5G9/1	
		5Y8.5/4	2.5YB.5/4	10GY8/6	10PB/2	
T	동일, 유사	5Y8/14	5B6B/4	2.5G7/8	10P7/4	
H	대 조	2.5YB.5/2	10Y9/2	5Y9/2	10R9/2	
		2.5Y6/6	7.5PB5/10	7.5B7/8	7.5PB5/10	
T	대 조	5.5Y8/14	10R6/8	7.5B6/6	10B6/4	

어두움 (dark)	H	동일, 유사	7.5RP7/4.7	2.5PB7/4	5PB7/6	2.5Y6/6
			7.5RP4/2	2.5PB6/4	5PB6/8	10Y4/2
	T	동일, 유사	7.5RP2/6	2.5PB5/4	2PB5/10	10Y5/4
	H	동일, 유사	7.5PB7/4	2.5PB7/4	10Y5/1	10PB/4
			7.5PB3/12	2.5PB6/4	10Y5/2	10PB3/4
T	대 조	N7	7.5B5/8	2.5Y3/2	10P6/4	
H	대 조	7.5RP4/2	10Y4/4	2.5Y6/6	7.5B7/4	
		2.5GA/4	7.5RP4/2	2.5PB5/10	2.5RP4/4	
T	동일, 유사	N8	2.5GA/4	10P5/4	2.5RP8/4	
H	대 조	7.5RP7/6	N9.5	5PB6/4		
		5PB4/4	2.5B4/8	7.5R3/10		
T	대 조	5B6G/10	2.5YR4/2	2PB5/10		
무 채 색	H	대 조	N5	N9.5	N8	N9.5
			N8	N4	N5	N5
			7.5R4/8	2.5YR4/2	10RP6/2	N8
	T	대 조	10Y8/1	N9.5		
			10Y6/1	N6		
			N7	2.5Y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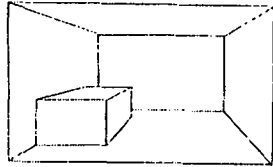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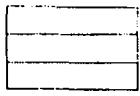
## 2. 실험용 배색표 및 실내투시도 제작

### 1) 배색표 제작

본 연구에서 배색표 <그림2>는 실내 이미지 평가 어휘를 만들기 위한 실험도구로 사용되고 실내투시도에 적용될 것이다.

### 2) 실내투시도 제작

이미 제작된 배색표에서 각계열의 색을 대표하고 실내배색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12개 <표 2>를 선정해 실험용 투시도에 의해 색채를 표현한다. 이때 가구는 3색중 채도가 높거나 무채색을 사용했고 천정과 벽 보다 바닥은 저명도 혹은 저명도 이면서 채도가 높은색을 사용했다. 투시도 형태는 <그림3>과 같다.



〈그림 2〉 배색표 〈그림 3〉 실험용 투시도

〈표 2〉 실험용 투시도 모델의 색채

(H:색상 T: 색조)

번호	색의 분류		백색 특징	3속성에 의한 기호	비 고
그림 1	난색 (dark)	H	동일	7.5RP7/4, 7.5RP4/2,	
		T	대조	7.5RP2/6,	
그림 2	한색 (light)	H	동일	2.5PB9/2, 2.5PB6/8,	
		T	유사	2.5PB5/10	
그림 3	중성색 (light)	H	유사	10Y8/1, 10Y6/1	
		T	유사	N7	
그림 4	한색 (light)	H	동일·유사	5BG8/1, N9	
		T	유사	5BG7/2	
그림 5	난색 (light)	H	동일·유사	2.5YR8/4, 2.5YR4/6	
		T	대조	2.5YR6/4	
그림 6	중성색 (dark)	H	대조	10Y4/4, 2.5G4/4	
		T	동일	7.5RP4/2	
그림 7	한색 (dark)	H	동일·유사	7.5PB7/4, 7.5PB3/12	
		T	대조	N7	
그림 8	한색·난색 (light)	H	대조	10Y9/2, 7.5PB5/10	
		T	대조	10R6/8	
그림 9	난색 (light)	H	동일·유사	W, 7.5RP9/2	
		T	유사	7.5RP8/4	
그림 10	중성색 (dark)	H	대조	7.5RP4/2, 2.5G4/4	
		T	유사	N8	
그림 11	난색·한색 (dark)	H	대조	2.5PB6/4, 7.5R3/10	
		T	대조	2PB5/10	
그림 12	중성색 (light)	H	유사·동일	2.5Y8.5/2, 2.5Y6/6	
		T	대조	2.5Y8/14	

### 3) 실내색채 이미지 표현 어휘수집 및 평가도구 작성

실내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현언어가 있어야 한다. 표현언어는 시각을 통하여 감응상태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 실내배색 유형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위해 SD(Semantic Differential Method)법에 의해 실험하고자 한다. 따라서 형용사를 수집해서 선별 정리했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 2차에 걸쳐 실험하였다.

1차 조사기간은 1998년 3월 18일, 3월 25일 양일간이다. 피험자수는 95명으로 실내디자인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D대, H여대 재학생으로, 이들은 비교적 미적 경험이 있고 실내색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연상어를 수집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국내외 실내공간 사례를 담은 슬라이드를 20-60초 정도 보면서 느낌이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자유연상측정법이 이용되었다. 연상어 수집결과와 비슷한 단어는 하나로 묶고 총 90개의 어휘를 얻을 수 있었다.

2차 조사기간은 1998년 3월 30일에서 4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피험자수는 총 109명(남자: 22명, 여자: 87명)으로 D여대, H여대, S산업대학 재학생들이었다. 1차 조사에서 추출된 어휘 50개를 사용해 설문지를 만들어 앞서 제작한 3배색표를 보여 주고 각 배색표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골라 쓰도록 하였고 그 중 빈도수가 높은 10개를 최종선택해서 반대어를 찾았다.

여기서 반대어란 사전적 의미의 반대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건축 및 인테리어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반대어이다. 최종적으로 추출한 10쌍

의 양극 형용사쌍은 <표3>과 같다.

<표 3> 최종평가 어휘

산뜻한 - 우중충한	시원한 - 답답한
단순한 - 복잡한	사무적인 - 가정적인
이국적인 - 한국적인	중후한 - 가벼운
지적인 - 정열적인	개성있는 - 평범한
활동적인 - 정적인	차분한 - 요란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추출된 10쌍의 양극 형용사를 5단계의 이미지 강도로 척도화하여 실내색채에 대한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만들었다.

#### IV. 실내색채 이미지 및 선호도 조사

##### 1. 조사기간 및 대상

실내색채 이미지와 선호도 조사는 1998년 5월 11일에서 5월 17일까지 실시했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해서 색채 이미지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사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해 대학재학생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했다. 조사 대상자의 인원은 <표4>와 같다.

<표 4> 조사 대상자의 분류

구분	대학생	일반인	비고
남	48	39	대학생 : 만 20-28세 일반인 : 30세 이상 총인원 : 172명
여	54	31	
계	102	70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상체질 분류 설문지에 의해 조사대상자의 체질을 분류해서

둘째, 실내색채에 대하여 각각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이미지와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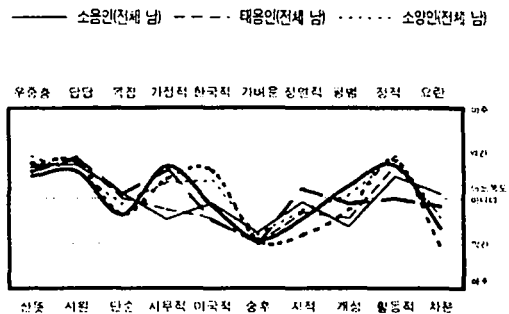
체질분류검사 설문지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QSCC(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Ⅱ를 사용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실내투시도 모델은 <그림3>이고 사용된 색채는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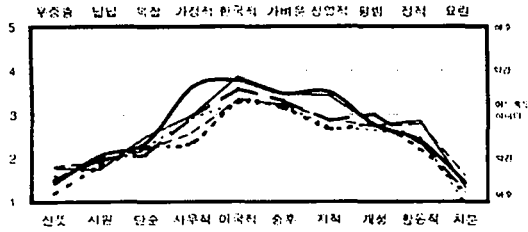
#### V. 한국인의 체질별 색채 이미지 및 선호도

체질별 실내 색채 이미지에 관한 조사이므로 체질분류가 선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체질 감별 결과는 <표5>와 같다. 총 172명 중 7명은 체질을 감별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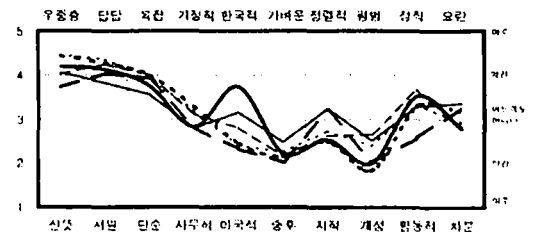
<그림 4> 전체 남녀 S.D.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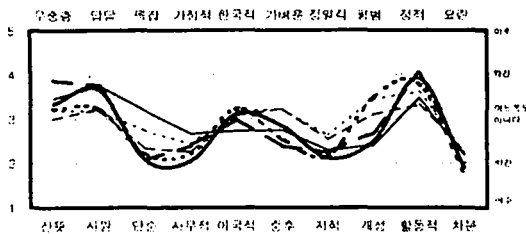
<그림 4.1> 난색(dark), 동일색상, 대조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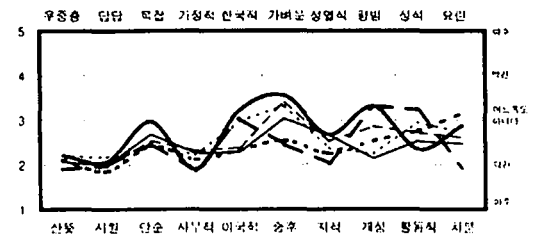
<그림 4.2> 한색(light), 동일색상, 유사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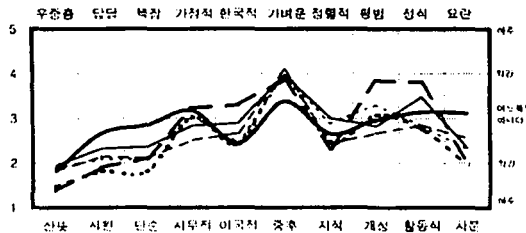
<그림 4.6> 중성색(dark), 대조색상, 유사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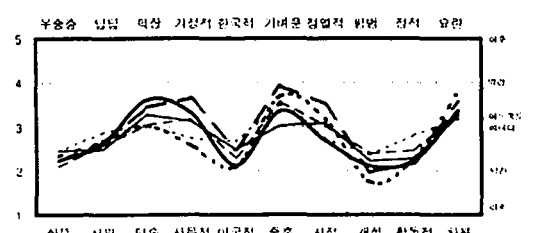
<그림 4.3> 중성색(light), 유사색상, 유사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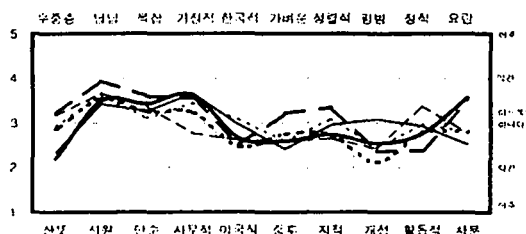
<그림 4.7> 한색(dark), 유사색상, 대조색조



<그림 4.4> 한색(light), 유사색상, 유사색조



<그림 4.8> 한색·난색(light), 대조색상, 대조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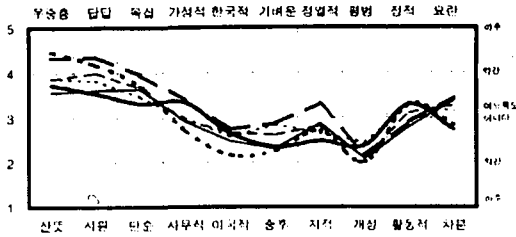


<그림 4.5> 난색(light), 동일색상, 대조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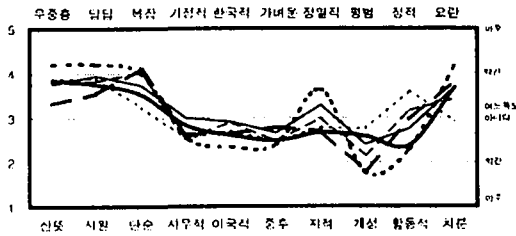


<그림 4.9> 난색(light), 유사색상, 유사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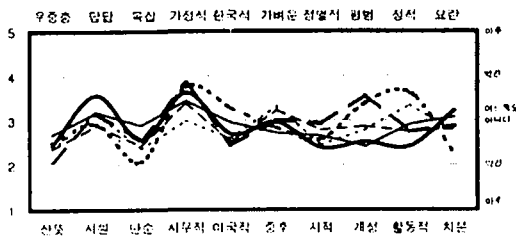




〈그림 4.10〉 중성색(dark), 대조색상, 유사색조



〈그림 4.11〉 난색, 한색(dark), 대조색상, 대조색조



〈그림 4.12〉 중성색(light), 동일색상, 대조색조

〈표 5〉 조사대상자 체질분류

체질별	구분			일반인		
	남	여	계	남	여	계
태양인	0	0	0	0	0	0
태음인	15	15	30	18	11	29
소양인	19	21	40	12	11	23
소음인	13	12	25	9	9	18
계	47	48	95	39	31	70

## 1. 실내 색채이미지

분석결과 성별, 체질별 평균척도치와 표준편차는 〈표 6〉과 같고, 분석결과에 대한 SD 프로파일은 〈그림 4〉와 같다.

전체 남녀 성별과 체질별 이미지 형성 공간을 살펴보면 〈그림4.1〉에서와 같이 「한국적-이국적인」 항목에서 소양인 전체 남녀는 평균척도치 3.6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태음인·소음인 전체 남녀는 2.88 이하의 척도치를 나타내어 이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체태음인이 소음인보다 2.55 이하의 더 낮은 척도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국적인 느낌의 정도가 태음인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4.2〉의 「사무적인-가정적인, 「지적인-정열적인」 항목에서도 남녀 소음인은 평균척도치 3.00 이상을 보여주어 가정적인, 정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태음인과 소양인은 2.57 이하의 척도치를 나타내어 사무적인,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림4.6〉의 「이국적인-한국적인」 항목에서도 소음인은 3.15 이상의 척도치를 보여줌으로서 〈그림6〉에 대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양인·태음인은 이국적인 이미지의 평균척도치 2.8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4.9〉에서도 「개성적인-평범한」 항목에서 소양인·소음인은 2.94 이하의 척도치를 보여 주어 개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태음인 남녀는 3.16 이상의 척도치를 보여 주어 평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같이 전체 남녀의 이미지 공간을 살펴볼 때 남녀 성별보다는 각 체질별로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느낌의 정도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 6〉 전체 남녀 평균척도치 · 표준편차

그룹	남자전체 평균			여자전체 평균			남자전체 표준편차			여자전체 표준편차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b>그룹1</b>												
산뜻한 - 우중중한	3.74	3.67	3.93	3.48	3.57	3.76	0.85	1.03	0.66	0.84	0.66	0.96
시원한 - 답답한	3.75	3.83	3.58	3.59	3.91	3.80	1.15	0.93	1.07	0.76	0.86	0.76
단순한 - 복잡한	3.12	3.01	2.88	2.64	3.08	2.64	0.94	0.97	1.0	0.88	0.95	0.94
사무적인 - 가정적	2.53	2.75	3.34	3.71	3.93	3.41	0.94	0.79	1.0	0.80	0.82	1.10
이국적인 - 한국적	2.88	2.55	3.38	2.83	2.53	3.60	1.16	0.99	1.2	1.08	1.27	1.26
중후한 - 가벼운	2.24	1.99	2.18	2.08	2.00	2.07	0.64	0.47	0.8	0.61	1.00	0.96
지적인 - 정열적인	2.90	2.68	2.73	2.54	3.19	2.19	0.88	0.06	1.0	0.93	1.37	0.71
개성있는 - 평범한	2.37	2.56	3.06	3.26	2.87	2.74	0.91	1.01	1.1	1.15	0.73	0.83
활동적인 - 정적인	3.47	3.69	3.93	3.72	2.99	3.84	0.94	1.12	0.9	1.02	1.43	0.78
차분한 - 요란한	3.09	2.62	2.58	2.33	2.82	1.91	1.14	0.89	1.1	1.10	1.40	0.69
<b>그룹2</b>												
산뜻한 - 우중중한	1.72	1.81	1.99	1.35	1.73	1.33	0.66	1.05	1.0	0.49	1.14	0.56
시원한 - 답답한	1.66	1.67	1.51	1.59	1.45	1.23	0.78	1.04	0.5	0.80	0.74	0.40
단순한 - 복잡한	1.96	2.16	2.04	2.11	2.21	2.09	0.67	0.88	0.7	0.88	0.67	0.55
사무적인 - 가정적	2.94	2.26	2.79	3.25	2.26	2.49	1.03	0.86	0.9	1.13	1.06	0.74
이국적인 - 한국적	3.49	2.72	2.58	3.57	3.55	2.44	1.18	0.91	1.0	1.25	1.13	0.84
중후한 - 가벼운	3.86	4.10	3.99	3.94	3.81	3.86	0.50	0.80	0.7	0.76	1.06	0.72
지적인 - 정열적인	3.21	2.57	2.47	3.26	2.49	2.51	1.30	0.96	0.8	0.62	1.00	0.59
개성있는 - 평범한	3.44	3.17	2.92	3.51	3.54	3.40	1.04	1.01	1.2	1.15	0.93	0.71
활동적인 - 정적인	2.75	2.33	2.50	1.98	2.24	1.81	1.07	1.05	1.0	0.71	1.06	0.61
차분한 - 요란한	2.53	3.18	2.15	2.90	2.47	2.39	0.88	0.95	0.9	0.80	0.93	0.67
<b>그룹3</b>												
산뜻한 - 우중중한	3.45	2.99	3.19	3.33	3.87	3.22	1.23	1.11	1.2	1.02	1.20	1.00
시원한 - 답답한	3.74	3.22	3.17	3.65	3.75	3.23	0.98	0.85	1.2	0.72	1.06	0.93
단순한 - 복잡한	3.19	2.33	2.74	2.08	2.08	2.21	0.94	0.87	0.9	0.64	0.95	0.92
사무적인 - 가정적	2.67	2.26	2.43	2.05	2.39	2.22	0.96	1.01	1.0	0.93	0.83	0.95
이국적인 - 한국적	2.73	3.08	3.18	3.11	2.99	3.23	1.08	1.04	1.0	1.08	1.10	1.06
중후한 - 가벼운	2.75	3.23	3.22	2.83	2.38	2.53	0.85	1.03	0.8	0.86	0.92	0.95
지적인 - 정열적인	2.29	2.53	2.63	2.11	2.24	2.16	0.98	0.70	0.7	0.69	0.89	0.72
개성있는 - 평범한	2.40	3.10	3.45	2.50	2.69	3.49	1.05	1.17	1.0	1.30	1.39	1.15
활동적인 - 정적인	3.47	3.32	3.60	3.92	4.03	3.78	0.80	0.84	1.0	0.61	0.54	0.89
차분한 - 요란한	2.18	2.27	2.24	1.89	2.05	1.72	0.86	0.88	0.6	0.52	0.94	0.96
<b>그룹4</b>												
산뜻한 - 우중중한	1.94	1.82	1.88	1.82	1.38	1.46	0.85	0.86	0.7	0.80	0.49	0.64
시원한 - 답답한	2.32	2.14	2.08	2.65	1.90	1.81	0.87	1.05	0.7	0.75	0.77	0.96
단순한 - 복잡한	2.36	2.11	2.09	2.85	2.10	1.81	0.88	0.70	0.8	0.73	0.43	0.63
사무적인 - 가정적	2.83	2.51	3.07	3.17	3.23	3.02	1.12	0.92	1.1	0.74	1.25	1.27
이국적인 - 한국적	2.89	2.67	2.44	2.44	3.29	2.42	1.24	1.13	0.9	1.01	1.30	0.99
중후한 - 가벼운	3.97	4.08	3.96	3.37	3.86	3.89	0.98	0.72	0.7	0.68	1.17	0.94
지적인 - 정열적인	3.00	2.42	2.88	2.65	2.32	2.46	1.02	0.81	0.7	0.90	0.62	0.64
개성있는 - 평범한	2.82	2.67	3.30	2.96	3.84	3.06	1.15	1.02	1.1	1.14	0.93	1.19
활동적인 - 정적인	3.47	2.84	2.83	3.14	3.81	2.76	1.19	1.08	1.0	1.08	0.94	1.07
차분한 - 요란한	2.33	2.56	2.31	3.11	2.00	1.95	1.29	1.14	1.1	1.00	0.69	0.74
<b>그룹5</b>												
산뜻한 - 우중중한	2.32	3.16	2.92	2.19	3.20	2.83	1.02	1.11	1.0	1.01	1.25	1.09
시원한 - 답답한	3.42	3.66	3.63	3.48	3.94	3.53	0.87	0.91	0.7	0.84	0.92	0.87
단순한 - 복잡한	3.26	3.38	3.09	3.43	3.59	3.25	0.89	0.82	0.8	0.90	0.98	0.94
사무적인 - 가정적	3.65	2.76	3.44	3.63	3.55	3.23	0.95	0.99	0.7	0.63	0.93	0.79
이국적인 - 한국적	2.95	2.61	3.08	2.65	2.50	2.47	0.99	1.05	1.2	1.13	0.97	1.07
중후한 - 가벼운	2.41	2.59	2.58	2.58	2.71	2.74	0.63	0.91	0.8	0.85	1.15	0.93
지적인 - 정열적인	2.95	2.64	3.09	2.73	3.35	2.72	1.02	1.04	1.1	1.01	0.92	0.77
개성있는 - 평범한	3.08	2.42	2.45	2.54	2.36	2.12	1.12	1.06	0.9	1.11	1.11	0.91
활동적인 - 정적인	2.93	3.38	2.96	2.76	2.38	2.78	0.81	0.80	0.9	0.86	0.93	0.93
차분한 - 요란한	2.52	2.76	2.81	3.57	3.47	2.81	1.30	0.76	0.8	0.90	1.00	1.02

그룹	남자전체 평균			여자전체 평균			남자전체 표준편차			여자전체 표준편차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소음	대음	소양
<b>그룹6</b>												
산뜻한 - 우중중한	4.06	4.03	4.46	4.19	3.73	4.44	1.01	1.09	0.8	0.79	1.42	0.71
시원한 - 답답한	3.82	4.24	4.36	4.12	4.04	4.27	1.22	0.84	0.7	0.90	1.05	0.54
단순한 - 복잡한	3.56	4.01	3.95	3.76	3.92	4.00	0.90	0.99	0.6	0.91	0.96	0.74
사무적인 - 가정적	2.79	3.11	3.18	2.82	2.81	3.30	0.90	1.08	1.1	0.61	0.97	0.67
이국적인 - 한국적	3.15	2.80	2.40	3.73	2.32	2.46	1.11	1.10	1.0	1.32	1.22	1.16
중후한 - 가벼운	2.47	2.16	2.25	2.22	2.02	2.14	0.74	0.72	0.8	0.63	0.67	0.61
지적인 - 정열적인	3.24	2.62	2.73	2.53	3.21	2.49	0.79	0.95	1.1	0.62	1.14	0.87
개성있는 - 평범한	2.51	2.65	2.39	2.00	2.02	1.84	0.98	0.87	0.9	0.83	0.81	0.67
활동적인 - 정적인	3.30	3.68	3.34	3.53	2.57	3.30	0.76	0.78	0.9	1.14	1.28	1.01
차분한 - 요란한	3.36	2.82	2.92	2.77	3.28	3.17	1.06	1.13	1.1	1.38	1.34	1.05
<b>그룹7</b>												
산뜻한 - 우중중한	2.06	2.19	2.20	2.21	1.90	2.11	0.94	0.88	0.93	0.82	1.10	0.77
시원한 - 답답한	1.99	1.97	2.17	2.07	1.98	1.86	1.04	0.98	1.07	0.93	0.95	0.84
단순한 - 복잡한	2.68	2.54	2.43	2.96	2.47	2.41	0.99	0.90	0.84	1.16	0.90	0.76
사무적인 - 가정적	2.26	2.31	2.22	1.90	1.87	2.12	0.64	0.80	0.83	0.59	0.80	0.64
이국적인 - 한국적	2.29	2.38	2.97	3.22	3.03	2.33	0.74	0.89	0.82	1.22	1.25	0.81
중후한 - 가벼운	3.03	3.41	3.32	3.54	2.45	2.54	0.70	0.83	0.85	1.06	0.90	0.79
지적인 - 정열적인	2.66	2.52	2.37	2.68	2.03	2.26	0.88	0.88	0.91	0.70	0.96	0.67
개성있는 - 평범한	2.14	2.86	2.24	3.31	3.30	2.53	0.90	1.07	0.89	1.35	1.25	0.84
활동적인 - 정적인	2.53	2.72	2.94	2.35	3.25	2.76	1.16	1.09	0.92	1.05	1.26	0.79
차분한 - 요란한	2.47	2.61	2.73	2.87	1.93	3.15	0.88	0.90	1.04	0.95	0.86	1.15
<b>그룹8</b>												
산뜻한 - 우중중한	1.23	1.07	1.18	0.96	1.13	1.24	0.93	0.77	0.84	1.21	1.05	1.12
시원한 - 답답한	2.38	2.43	2.69	2.44	2.32	2.45	0.95	0.81	0.94	1.34	1.00	1.04
단순한 - 복잡한	3.00	2.60	3.09	3.11	3.17	2.79	0.91	1.00	0.85	0.69	0.93	1.03
사무적인 - 가정적	3.19	3.31	2.74	3.65	3.51	2.81	0.91	1.26	0.97	1.10	0.92	1.80
이국적인 - 한국적	2.82	2.57	2.71	2.74	3.12	2.46	0.70	1.00	0.81	0.88	0.70	0.80
중후한 - 가벼운	2.65	3.09	3.11	2.58	3.15	2.69	0.87	0.87	0.65	0.55	0.93	0.60
지적인 - 정열적인	2.86	3.20	3.01	3.03	3.65	3.59	0.93	1.04	0.75	0.92	0.88	0.92
개성있는 - 평범한	3.05	2.70	2.58	2.44	2.78	2.47	0.92	1.14	0.84	0.97	1.06	0.70
활동적인 - 정적인	2.17	2.43	2.72	2.24	2.13	1.96	0.76	0.96	0.70	0.86	1.05	0.71
차분한 - 요란한	2.17	2.89	2.95	2.82	2.88	3.04	1.00	0.94	0.79	0.75	0.82	0.78
<b>그룹9</b>												
산뜻한 - 우중중한	2.23	2.12	2.32	1.51	1.58	1.82	0.92	0.95	1.03	0.52	0.65	0.89
시원한 - 답답한	2.34	2.58	2.89	2.26	1.98	2.57	1.03	1.05	0.95	1.02	0.89	0.99
단순한 - 복잡한	2.40	2.20	1.89	1.77	2.18	2.00	0.82	0.88	0.76	0.49	0.84	0.89
사무적인 - 가정적	3.50	3.43	3.38	3.71	4.09	3.45	1.07	0.87	0.92	1.01	0.91	1.15
이국적인 - 한국적	2.28	2.39	2.79	1.72	2.84	2.46	1.23	1.05	1.17	0.74	1.46	1.21
중후한 - 가벼운	3.75	3.97	3.97	3.66	4.23	3.93	0.86	0.86	0.99	0.		

	남자전체 평균		여자전체 평균		남자전체 표준편차		여자전체 표준편차					
<b>그림11</b>												
산뜻한·우중충한	3.76	3.81	3.88	3.84	3.32	4.21	1.14	1.11	0.80	1.15	1.26	1.05
시원한·답답한	3.94	3.82	3.89	3.75	3.55	4.21	1.04	0.90	0.84	0.83	1.14	0.98
단순한·복잡한	3.74	4.03	3.25	3.52	4.11	4.00	0.78	0.70	1.01	1.05	0.83	0.89
사무적인·가정적	3.00	2.53	2.54	2.83	2.63	2.56	0.84	0.88	0.82	0.64	0.81	0.97
이국적인·한국적	2.91	2.89	2.70	2.61	2.64	2.35	0.82	1.03	0.93	1.08	1.17	1.25
중후한·가벼운	2.66	2.47	2.47	2.49	2.78	2.39	0.87	0.67	0.96	0.79	0.90	0.81
지적인·정열적인	3.28	2.99	2.78	2.67	2.69	3.63	0.90	0.75	0.77	1.00	0.95	0.89
개성있는·평범한	2.40	2.15	2.75	2.58	1.80	1.77	1.15	0.81	1.01	1.45	0.96	1.12
활동적인·정적인	2.76	3.16	3.60	2.39	2.96	2.30	0.95	1.02	0.82	0.83	1.05	0.92
차분한·요란한	3.68	3.42	2.92	3.68	3.83	4.18	0.86	1.09	1.08	0.81	1.11	0.81
<b>그림12</b>												
산뜻한·우중충한	2.68	2.36	2.35	2.44	2.08	2.49	1.06	0.98	0.88	1.28	0.74	1.24
시원한·답답한	3.18	2.89	3.20	3.57	3.17	2.92	1.15	0.79	0.86	0.94	1.03	1.02
단순한·복잡한	2.89	2.42	2.37	2.57	2.56	2.07	0.95	0.78	0.85	1.04	0.75	0.70
사무적인·가정적	3.44	3.41	2.99	3.62	3.85	3.76	0.84	0.99	0.98	0.90	1.04	0.89
이국적인·한국적	2.95	2.51	2.58	2.69	2.44	3.28	1.05	1.14	0.98	1.03	1.44	1.37
중후한·가벼운	2.72	3.23	3.32	2.96	3.01	2.84	1.07	0.89	0.92	0.93	1.20	1.06
지적인·정열적인	2.65	2.78	2.44	2.39	2.92	2.58	0.75	0.99	0.89	0.95	0.98	0.78
개성있는·평범한	2.42	2.87	2.79	2.51	3.57	3.39	0.96	1.21	1.23	1.32	1.27	1.11
활동적인·정적인	2.91	2.74	3.35	2.42	2.74	3.62	1.02	1.13	1.00	1.15	1.25	0.99
차분한·요란한	3.08	2.81	2.73	3.22	2.87	2.23	1.22	1.05	1.07	0.97	1.31	0.67

학생집단에서도 성별의 차이보다는 각 체질별로 이미지 형성공간이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음인과 양인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반대의 이미지를 나타냄을 여러 그림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개성적인-평범한, 「지적인-정열적인」 등과 같은 항목에서 특히 체질 유형에 따라 상반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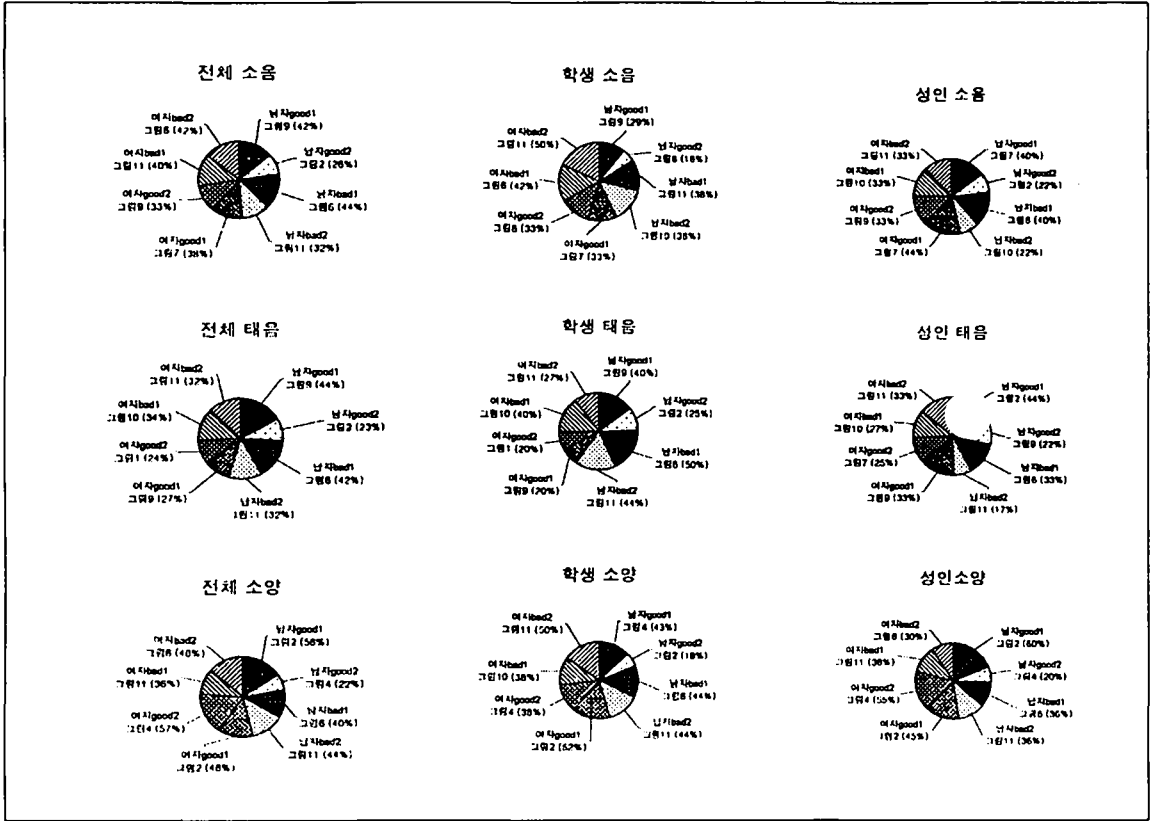
성인집단에서도 성별보다는 체질별로 이미지 형성공간이 같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집단에 비해 상반되는 이미지 공간을 갖는 것은 드물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집단이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거나 실내디자인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므로 이들은 비교적 미적 경험이 풍부하고 실내색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집단이어서 이미지에 대한 표현이 좀더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2. 색채 선호도

선호하는 색채유형에 대한 결과는 <그림5>와 같이 나타났다. 실내색채 선호유형에서도 남녀 성별 차이보다 체질별 차이를 보인다. 전체 소음인 남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그림 9>이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그림2>이다. <그림9>는 명도가 높으며 색상, 색조가 유사한 난색계 즉 핑크계열 색채이다. 여자는 <그림7> <그림9>를 선호했다. 소음인 전체 남녀가 <그림9>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는 「산뜻한, 「차분한, 「이국적인」이다. <그림2>와 <그림7>은 청색의 한색계열의 색채이다. 두 그림에서 소음인은 「산뜻한, 「활동적인」 항목에 2.06, 2.75 이하의 척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음인은 실내 색채에 있어 전체적인 색상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산뜻하고 차분하고 활동적이며 이국적인 등의 색채 이미지에 의해 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싫어하는 그림은 <그림6> <그림11>로 색채의 명도가 증명도 이하로 배색되어 있으며 색상이 대조적인 경우이다. 각각의 그림들에서 소음인은 「우중충한, 「답답한」의 항목에 3.48, 3.59의 높은 척도를 보여주었고 32% 이상의 싫어하는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태음인 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그림9>로 각각 44%, 27%의 선호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5〉 체질별 선호그림

이 그림은 「산뜻한」, 「단순한」, 이미지 항목에서 2.12, 2.20의 높은 척도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그림2〉와 〈그림1〉이다. 〈그림2〉는 한색의 동일색상, 유사색조로 「산뜻한」, 「시원한」, 「활동적인」,의 이미지의 척도를 나타냈다. 〈그림9〉와 〈그림1〉은 난색계의 동일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태음인은 난색계열의 색채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싫어하는 유형은 〈그림6〉 〈그림10〉 〈그림11〉의 대조색상의 우중충한 이미지이다. 싫어하는 비율은 42%, 34%, 32%이다. 그러나 개성적인 항목에서는 2.65 이하의 평균 척도치를 보여

주었다.

소양인 전체 남녀가 선호하는 배색유형은 〈그림2〉와 〈그림4〉이고 〈그림2〉에 대해서는 48%이상의 높은 선호율을 보였다. 이들이 선호하는 그림에 대해 갖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산뜻한」, 「시원한」, 「가벼운」이며 한색의 색상이다. 싫어하는 그림은 〈그림6〉과 〈그림11〉이고 각각 40%, 36%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다.

체질별 전체 남녀의 그림에 대한 선호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람들은 실내색채로서 밝고 산뜻한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판단된다. 어둡고 색상차가 큰 배색은 개성적인 느낌이 강하나 우중충하고 답답하

게 느끼며 아주 싫어한다. 그러나 <그림8>은 색상차가 크나 밝은 분위기로 학생소음 집단에서는 남녀가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색상차에 의한 배색 보다는 명도차이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음인은 대체로 난색의 색을 선호하고 소양인은 한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은 색상선호에 있어 대체로 난색보다는 한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체질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 VI. 결 론

건물내부의 색채계획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요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상체질론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색채이미지와 선호도를 조사하였고 그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내색채 이미지 평가도구 작성을 위한 어휘 수집을 했다. 사용빈도수가 높은 산뜻한, 단순한, 이국적인, 지적인, 활동적인, 시원한, 사무적인, 중후한, 개성있는, 차분한의 형용사를 추출할 수 있었다.
- 실내색채 유형안에 대한 이미지 반응은 많은 평가 항목에서 남녀 성별보다는 체질에 따라 색채이미지 척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집단과 성인집단을 비교했을 때 학생집단이 체질별 색채이미지에 대한 척도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 색채 선호도 역시 성별 보다는 체질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소음인과 태음인은 「산뜻한, 「차분한, 「이국적인」의 이미지를 가진 난색계의

색채유형을 가장 선호했다. 소양인은 청색계·녹색계의 산뜻한 시원한의 이미지가 두드러진 배색유형을 선호했다. 즉 이들이 좋아하는 실내색채는 밝은 색상, 밝은 색조이었다. 그리고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모두는 전반적으로 어둡고 색상이 대조되거나 색상 거리가 먼 배색유형은 개성적이기는 하나 우중충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인지 싫어했다.

따라서 본연구의 결과 한국인이 선호하는 실내색채와 이미지는 각체질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개인화의 요구가 점점 커져가는 실내공간 색채 계획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내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채이미지 계획이나, 실제로 요구되는 기능적 색채계획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CSS)Ⅱ의 표준화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2. 박돈서, "한국 현대건축의장의 색채계획 방법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3. 박돈서, 「건축의 색, 도시의 색」, 1996.
4. 박은주, 「색채 조형의 기초」, 미진사, 1989.
5. 박재승(역), 「건축의 색채디자인」, 도서출판 단우, 1996.
6. 송일병, "이제마 철학의 학문적배경과 사상의학의 성립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3 No1, 1991.
7. 송정모, "사상의학의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이병천 역, 「인테리어컬러·코디네이션사전」, 조형사, 1993.
  9. 하용득, 「한국의 전통색과 색채심리」, 명지출판사, 1996.
  10. 한국의 전통색 제1집, KBS한국색채연구소, 1990.
  11. 한국표준색표집,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1991.
  12. 南雲治嘉, Color Representation, Graphicsha Publishing Co., Ltd, 1996.
  13. 配色事典, 澁川育由/高橋由美 編, 河出書房新社, 1987.